

저심도 방식 푸른길 공원에 막혀 건설비용 천정부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법 변경 검토 왜?

민선 6기 광주시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이 푸른길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예산도 최대한 절감하기로 하면서 건설방식 변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추가 예산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부 승인 절차 등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가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 확정해 놓은 저심도 방식은 지하 4~9m만 파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시는 이 방식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41.7km구간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비용 부담 커 고민=저심도 방식은 시속 30~40km로 속도가 일정하며, 지상 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강점이 있다. 건설비는 km당 500억~600억원으로 기존 지하철(km당 1000억원)보다는 낮지만, 지상고가나 트램보다는 높다. 통신키이틀이나 상·하수관거 등 지장물이 많거나 지반이 약하면 건설 비용이 급증하는 점은 최대 단점이다.

이 같은 추가 건설비용 우려 때문에 광산구 내 일부 신도심은 지하 저심도가 아닌 지상철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소음 논란과 교통 정체 민원등에 시달릴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푸른길 구간을 훼손하지 않기로 하면서 저심도 방식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푸른길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바로 옆에 위치한 1·2호선 환승역인 남광주역으로 2호선이 들어가기 위해선 기존 1호선보다 더 깊게 파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

1호선 보다 깊게 파내려가야

도심명물 된 대구 3호선

모노레일 장단점 분석 나서

도시철도 1호선 등 기존 지하철은 지하 15~25m 깊이에 위치하고 있다. 건설비용도 km당 1000억원 정도로 높다.

지상건설은 모노레일 등 지상고가와 노면전차인 트램 등이 있다.

광주시에 민선 4기때 계획했던 지상고가 방식의 건설비는 km당 450억~500억원 대로 저심도보다 저렴하다. 건설 후 운영비도 지하철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광주시에 애초 고가방식을 선택했으나 민선 5기때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저심도로 전환했다. 이 방식은 저렴한 대신 소음과 진동을 비롯한 차로 점유 및 도심미관 저해 등이 단점으로 꼽혀왔다.

◇도심 명물로=지상고가방식의 이미지를 바꾼 게 바로 대구시가 지난 4월 개통한 모노레일(monorail·3호선)이다. 광주시도 모노레일의 장단점 분석에 한창이다.

모노레일은 단궤조(궤도가 하나)인 철도를 이르는 말로, 콘크리트나 철제 빔으로 이뤄져 있는 한 개의 궤도 위를 고무타이어 나 철륵(쇠바퀴)이 달린 열차가 운행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노레일을 도입한 대구시는 궤도 위를 차량의 고무바퀴가 감싸안고 주행하는 방식을 적용, 소음과 진동을 없애고 승차감이 높아졌다고 한다. 모노레일의 수송규모가 도시철도와 버스의

의 중간으로, 인구 150만인 광주의 도시규모에도 적합한 방식이다.

특히 모노레일 건립 당시 지상 11m 높이의 고공 운행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무인 운전 안전성, 시민 주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개통 후 쾌적한 승차감, 안전성, 넓은 차장으로 바라보는 전경 등으로 도심 관광 명물이 됐다.

대구 도심은 노선을 따라 모노레일과 비슷한 높이의 건물 2층에 커피숍 등이 대거 들어서며 등 신중 2층 상권까지 형성되고 있으며, 구도심은 물론 신도심 상권도 살려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전체 24km구간 30개 역을 지나는 데도 48분(승용차 80분대)이면 충분하고, 아파트나 주택 밀집 지역을 지날 때는 '창문 흐림' 장치가 작동돼 시민의 사생활도 보호해 준다고 한다.

◇저속·사고 위험=또 다른 도심교통수단은 트램이다.

도로중앙 2~4개 차로를 전차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km당 250억원으로 가장 경제적인 경량전철로 꼽힌다. 하지만 시속 10~15km로 저속이며 교차로 사고 위험, 도로점용 과다에 따른 차량정체 유발 등의 단점이 있다. 강설이나 강우 등 기상 여건에도 영향을 받는 등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범수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열악한 시 재정 등을 감안해 마지막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비용·고효율적인 최상의 건설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늦어도 9월내에 최종안을 결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제단 YMCA 무진관에 추모제단이 만들어지고 있다.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추모제와 사진전이 열리며 추모소는 17일부터 2일간 일반에 공개된다. 18일 오전10시에는 정치인, 각계인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배도 거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국비예산 확보 힘 모으자 윤시장-광주 국회의원 간담회

윤장현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8명이 내년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윤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16일 낮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정책간담회(사진)를 열고 2016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간담회에는 윤 시장과 우범기 경제부시장 등 시 간부들과 박주선(동구), 박해자(서구 갑), 천정배(서구 을), 장병완(남구), 강기정(북구 갑), 임내현(북구 을), 김동철(광산구 갑), 권은희(광산구 을) 등 5개 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조 조성 사업 등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기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1·2차 심의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나 보류한 사회간접자본(SOC), 경



제 활성화 사업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 외에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첨단실감 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총 40건 사업에 대해 4057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최근 정부가 세수 부족 등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 여·야 예결위원 등과 협력해 국회 예산 심의까지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차대통령 8·15 경축사

남북이산가족 명단 교환 제안

일본엔 성의 있는 행동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앞으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하여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중앙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답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이하 담화)에서 전쟁에 대해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후 세대에 사죄할 숙명을 지워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역사는 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산 증인들의 증언으로 살아있는 것"이라며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북 메시지에선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연내 남북이산가족 명단 교환 실현 등을 북한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는 경색된 한일관계와 악화된 남북관계의 원인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새로운 틀과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에 무게를 두는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담화의 과거형 사죄와 북한의 DMZ 지뢰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대일, 대북 메시지 방향은 특히 주목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아베 담화와 북한 지뢰도발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겨레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며 각각 그 담화와 도발적 성격의 한계를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주목한다며 '행동으로 뒷받침'해 신뢰를 얻으라고 촉구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회가 주어 있다"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일관계나 남북관계 모두 관계를 악화시킬 요소들을 부각시키기도는, 관계개선을 향한 '출구'를 열어두면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와 실천이 전제된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쪽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대일 메시지에서 역사문제와 경제·안보 문제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박 대통령이 오는 10월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네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갖는다고 한국시간으로 지난 13일 새벽 시종에 맞춰 공동발표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경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